

社說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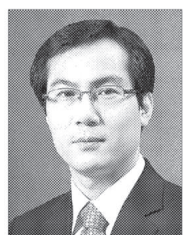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 북부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와 포천시와 대진대학교 재단이 힘을 모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발전 여건에서 강점으로 꼽히는 것은 대도시 집적 경제활용 가능성과 전통제조업으로 탈피 신산업 육성 가능성이 높으며 넓은 개발 가능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영세비도시형 업종위주의 산업구조, 중첩된 규제 최소규모의 산업단지 미형성,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위협요인으로 영세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침체가능성이 높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며 난개발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회요인으로는 IG필립스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규제완화의 흐름과 주민미군 반환 공여지개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완공, 서울~신북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에너지, 열색·피혁, 디지털디자인 등 3대 특성화 산업의 거점단지로 조성하며,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식기반 첨단업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가 내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에 43번 국도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건설도 현재 용지보상이 66%진척되어 내년 6월 종합지원센터 준공일에 맞춰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을 서부권(고양, 파주), 중북부권(경원선축·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동북부권(경춘선축·남양주, 구리, 가평)으로 나눠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입장이다. 서부권에는 정보통신기기, 디지털콘텐츠 및 전산산업,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중북부권에는 정보통신, 가구나산업, 섬유, 문화관광, 가족가방, 민속주류산업을 유치하고 동북부권에는 생태관광, 영상을 포함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3단계로 나눠 단지조성 및 기반확보에는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확장기에는 다기능복합테크노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단지 조성시기에는 첨단산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자금 687억원 중 대진대학교 재단이 567억원, 경기도가 50억원, 포천시가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 돈은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고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야 할 예산이다.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외치는 경기도가 50억원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하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남부지역에 명품도시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착 경기북부지역 산업발전의 근간이 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지원에 생색을 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경기도는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 마침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충의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중단송유관(TKP) 토양오염 심각

김영우 국회의원, 국방부 자료에서 밝혀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사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토양오염 및 정화사업 현황과 한국중단송유관(TKP) 토양오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68곳과 군이 관리하는 TKP가 지나는 11개 지역 23곳에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염 지역에서는 TKH(총석유계탄화수소)와 발암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등)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성분들이 환경부가 정한 유류토양오염 기준치를 최고 26배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군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한 후 정밀조사 예산과 정화사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복구예산도 늘어났다. 군부대 토양오염지역은 모두 68건이며 53건은 완료했으나 15건은 아직 진행중이며 복구예산만 451억원이 소요됐다. 토양오염의 원인으로는 배관과 손, 유류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대부분으로 폐페인트, 폐 콜타르와 같은 폐기물 매몰, 폐축전지 방치 등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군이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확인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데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밝혀

한전포천지점 사회봉사활동 적극 실천



한전 포천지점은 '세상에 빛을 이룩해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찾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전 포천지점(지점장 안종일)은 '세상에 빛을 이룩해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찾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 내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했다. 한전 포천지점은 지난 9월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추석 명절을 여는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높의 집 사회복지시설 및 관내 독거노인을 방문해 쌀 65포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결식아동을 위해 매주 화요일에 행복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호스피스복지관 노령봉사 활동 및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2004년 5월부터 포천지점 전 직원은 1구와 1,000원인 '사랑기금(Love fund)'을 20계좌 범위 내에서 개인별 가입한 구좌 수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사회봉사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안종일 지점장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계획이라고 한다. 김연택기자 uralsm@nate.com

LP가스 폭발 안전사고 특별교육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대상

포천소방서(서장 임정호)는 10월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 도시가스(주) 경기지사 임인섭 강사를 초청해 LP가스 폭발 안전사고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22일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소재 지하다방에서 LP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가스(LPG,LNG) 위험성(성질·상태), 가스 사고사례(폭발 및 누출), 사고 발생시 대응(대처)요령, 차단 밸브 조작요령, 측정기기 취급요령 및 사례 중심의 안전 및 소방활동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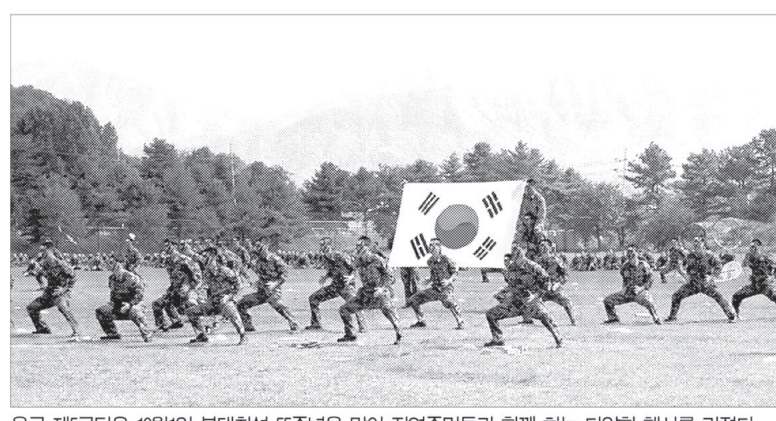


포천소방서는 10월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도시가스(주) 경기지사 임인섭 강사를 초청해 LP가스 폭발 안전사고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화력운동 시범 성공 자부심 강한 부대

육군 5군단 창설 55주년 기념식, 다채로운 행사

육군 제5군단(군단장 중장 한기호)은 10월1일 부대창설 55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5군단은 전군 최초로 지상전력 C4I 체계인 ATCIS를 전력화하여 최첨단의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무장하였으며, 특히 9월26일에는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육군 제병 합동훈련장인 승진훈련장에서 대통령과 주요인사, 국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최첨단 지휘·통제 시스템과 연계한 '08 통합화력운용 시범'을 보임으로써 첨단 기술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한 바 있다. 군단사령부 화력연병장에서 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육군 제5군단은 10월1일 부대창설 55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국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이정자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7회 전국남녀초등학교농구대회 마쳐

대한농구협회(회장 이종철)는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치러지는 농구꿈나무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농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7회 전국남녀초등학교농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여자부 수원화서초등학교팀 등 11개팀, 남자부 경기성남초등학교팀 등 22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대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자부 ▶우승 성남수정초등학교 ▶최우수선수 김여름 ▶지도상 이미정 코치 ▶2위 서울 신일초등학교 ▶우수선수상 홍지혜 ▶남자부 ▶우승 서울 삼평초등학교 ▶최우수선수상 김도경 ▶지도상 박민재 코치 ▶2위 서울 대방초등학교 ▶우수선수상 원종삼 ▶최우수선수상성상 ▶서울 대방초등학교 강우석 ▶서울 선일초등학교 김보경

사단법인 한국상록회는 구한말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민족의 정의의 주권을 옹호하였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워 후세교육에 전념하였으며 겨레의 꽃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워준 남궁억 선생의 애국정신과 대표적인 민족주의 문화인 '심훈 선생의 상록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독립사상을 지니게 된 춘천고보 학생들이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과 탄압정책에 대하여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1937년에 '상록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는 연설회 개최, 청년학도의 귀농 운동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계획하는 토론회 개최, 우리의 꽃 무궁화 심기 운동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육고를 치른 그 송고한 상록수 정신을 바탕으로 1970년 11월에 전국 규모의 상록회를 창설하고 38년 동안 한결 같이 인간의 진솔한 삶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헌신에 뿌리 내려온 순수한 우리나라의 봉사단체이다.

10월 정기회의 개최안내

일시 : 2008년 10월 16일(목) 오후 7시
장소 : 포천신문사 대회의실
대상 : 포천시상록회 임원 및 회원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 상록회
회원가입문의: ☎ 031-542-1506~7(사무국장 김영복, 010-7588-7272)